

# 比較的 視角에서 본 東아시아 民族主義\*

車 基 璧

- |                     |          |
|---------------------|----------|
| I. 滲透型과 衝擊型         | IV. 對應方式 |
| II. 傳播에 있어서의 論理와 心理 | V. 原因科明  |
| III. 西洋化的 類型        | VI. 問題點  |

## I. 滲透型과 衝擊型

近世西洋의 東洋에로의 팽창은 흔히 西力東漸이라 표현되고 있지만, 기실 그것은 옛날의 佛敎傳來 처럼 서서히 스며드는 滲透型(osmosis)이 아니고, 不意의 급격하고 교란적인, 단적으로 말하면 강제적 침입인 衝擊型(shock)이었다.

佛敎傳來와 같은 滲透型의 경우는 큰 고통이나 단절이 없는 推移이며 外來는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수용되어 土着의 文脈속에서 흡수·동화된다. 그러므로 받은 측에서는 傳統의 단절이 없었고 異質物의 混在에 고민하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西洋의 침입은 驚愕을 수반하는 不意의 충격이며, 실로 그것은 國家의 存立 그 자체를 위협하는 충격이었다.

따라서 中國, 日本, 韓國 등 東아시아 三國은 기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서양문명의 충격에 抵抗하는 反應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같은 저항은 각기 鎖國과 開國이라는 두 단계를 거치면서 전개되었지만, 그러한 전개속에서 각국에 내셔널리즘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 내셔널리즘 문제에 당장 들어가기 전에, 比較的 視角<sup>1)</sup> 내지 分析 틀을 얻기 위해 ‘文化

\* 이 논문은 제 5차 한중일 정치문화비교 국제학술회의의 기조연설논문임

1) 여기서 말하는 比較的 視角이란 東아시아 내셔널리즘을 西洋 내셔널리즘과 비교하는 시각이 아니라, 東아시아 三國의 내셔널리즘을 서로 비교하는 시각이다.

變容'(acculturation)의 문제에 관한 Arnold Toynbee의 持論을 미리 살펴  
기로 한다.

## Ⅰ. 傳播에 있어서의 論理와 心理

Toynbee는 文明간의 接觸, 傳播와 受容의 문제를 그의 이른바 '마주  
침'(encounter)에 있어서의 挑戰과 應戰 過程의 論理的 및 心理的 歸結 문  
제로서 고찰했다.

Toynbee에 의하면, 어떠한 文明이나 文化도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간  
에 不可分의 '內的 關聯'이 있는 '하나의 有機體的全體'이다. 그런데 문  
명의 접촉이나 전파의 과정에서는 두가지 法則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그가 文化的 放射와 受容의 '第二法則'이라 부른 "甲  
은 乙을 부른다"(one thing leads to another)는 것이다. 즉 어떤 放射性  
能을 가진 文明이 異質社會의 저항에 부딪혀 技術·科學·哲學·藝術·宗  
敎 등 각 요소로 분해될 때 技術처럼 文化價値가 낮은 요소일 수록 그런  
이질社會의 저항을 적게 받아 신속하고 광범한 浸透力을 발휘하나, 각 요  
소간의 不可分의 內的 關聯 때문에 일단 채용된 外來의 技術은 그 영향이  
生活의 表面에만 머물지 않고 점차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 그 社會의 傳統  
的인 文化全體를 침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가 文化的 放射  
와 受容의 '第一法則'이라 부른 "甲의 藥은 乙의 毒"(one man's meat is  
another man's poison)이라는 것으로, 한 社會에서 無害 내지 有益한 작용  
을 하던 文化의 한 요소가 따로 떼어져 다른 社會에 들어가면 그 社會의  
生命에 害毒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은 文化的 放射와 受容의 과정을 지배하는 論理的 歸結에 관한 고  
찰이지만, Toynbee는 이어서 그 心理的 歸結에 관해 분석한다. 그는 '주  
는 측'(agent)과 '받는 측'(reagent)으로 나누어 '고찰하지만, 우선 주는  
측의 心理에는 무엇 보다도 받는 측을 蔑視하고 劣等視하는 !감정이 작용

하거니와, 이 경우 주는 측의 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文化全體를 주려는 경우(지난날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고, 다른 하나는 一部分만을 주려는 경우(지난날의 영국과 네델란드)이다. 전자의 경우는 받는 측의 抵抗이 몹시 강하고, 후자의 경우는 그 抵抗이 비교적 약하다.

그리고 받는 측의 心理的 反應에도 두개의 가능한 選擇, 곧 Zealotism과 Herodianism이 있다. Zealotism이란 말하자면 ‘攘夷論’이며 침입해온 外來文明을 전면적으로, 게다가 열광적으로 배척한다. 자기의 전통적인 生活方式를 엄격하게 墨守하며, 土着文明을 끝까지 철저히 지키려 한다. 그러나 Zealot 派의 反應은 긴 눈으로 보면 실패하게 마련인데, 왜냐하면 그들의 문명이 侵入者의 문명에 비해 생활상의 能率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Herodianism은 말하자면 ‘開國論’이며, 침입해온 外來文明이 가지는 武器를 자기 것으로 하여 그 빌린 무기를 가지고 침입자에게 대항함으로써 자기를 지키려 한다. Zealot의 열광적인 태도와는 반대로 Herodian은 냉정하고 妥算의이다. 그러나 Herodian은 Zealot와 같은 沒落의 운명을 일단은 면한다 하더라도 그 대신 위에서 말한 그 ‘第二法則’에 따라 결국은 外來文明의 생활방식으로 轉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외래문명으로부터의 文化的 借用은 단순한 借用에 머물지 않고 마침내는 그 決濟를 위해 고유의 文化적 財寶를 賣渡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그 일 자체가 특유의 苦痛과 害毒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Zealotism이건 Herodianism이건, 조만간 다같이 실패할 운명에 놓여 있는 셈인데, 이를 救濟할 第三의 길을 Toynbee는 낡은 것과 새 것의 한 次元 높은 ‘文化總合’에서 구하며, 이것을 Evangelism(福音主義)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것의 成功은 ‘그 사회의 내부로부터 어떤 새로운 力動的 힘 내지 創造的인 운동의 출현’에 의해서만 가능해지리라고 結論 짓고 있다.<sup>2)</sup>

2) 이 項目의 서술은 板垣興一, 『現代ナシヨナリズム: 視點と方法』, 論創社, 1985, pp27~31을 要約한 것이다.

### Ⅲ. 西洋化의 類型

위에서 비교적 자세히 살핀 Toynbee의 持論은 요컨대 自國의 힘을 키워 傳統과 國權을 지키기 위해 시도한 西洋化가 결국 傳統과 國權을 상실 내지 약화시키게 된다는 이론바 '西洋化의 패러독스'를 분석적으로 解明한 것이다.

그가 제시한 '分析 틀'에 따라 東아시아 三國이 거친 西洋化 過程은 아래와 같이 類型化할 수 있을 것 같다.

日本은 Zealotism(攘夷論=鎖國)에서 Herodianism(開國)을 거쳐 어느 정도 Evangelism으로 나아가게 됨으로써 자주적인 근대적 民族國家를 형성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中國과 韓國은 Zealotism과 Herodianism의 두 단계를 거치기는 했지만, Evangelism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여 결국 중국은 半植民地化되고, 한국은 植民地化되고 말았다.

이같은 서로 다른 西洋化 過程은 東아시아 三國의 내셔널리즘에도 성격상의 차이를 가져 왔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東아시아 三國의 내셔널리즘은 既存國家를 지키기 위해 西洋의 충격적인 침입에 抵抗하는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西洋의 충격적인 침입은 東아시아 三國에서 내셔널리즘을 일으키는데 起緣이 된 것만은 아니다. 東아시아 三國은 대내적 통일과 대외적 평등이 國家가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理念을 西洋으로부터 배우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서양문명을 政治·經濟·社會·文化 全般에 걸쳐 배우게 됨으로써 自主自立的의 이념으로서의 내셔널리즘에 눈 뜨게 되었던 것이다.<sup>3)</sup>

내셔널리즘은 두 면을 가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그것은 네이션의 모든 同僚成員들간의 생생한 共感을 자아낸다(patriotism). 그리고 대외적으

3) 山本 新, 「西洋化とナショナリズム」, 季刊『社會科學』5, 經濟往來社, 1964. 11, p10.

로는 그것은 네이션의 범위 밖에 있는 同僚人間들에 대한 無關心이나 不信, 憎惡로 표현된다(xenophobia). 그리하여 내셔널리즘이 대외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民族主義가 되고 대내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國民主義가 된다. 그리고 市民的 基盤이 약한 나라에서 내셔널리즘이 國家의 權能에 너무 기댈 때 國家主義로 된다.<sup>4)</sup>

東아시아 三國의 내셔널리즘의 경우, 三國 다같이 국민주의적인 성격은 매우 약하고, 일본의 경우는 國家主義, 중국과 한국의 경우는 民族主義의 성격이 강했다. 이것은 다름아닌 '西洋化의 패러독스'에 對處한 방식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 IV. 對應方式

東아시아 三國이 '西洋化의 패러독스'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즉 서양문명의 借用을 산업·기술·군비 등, 이른바 '物質文明'에 한정하고, 기독교라든가 개인주의나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사상적·정치적 여러 原理의 浸蝕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억압하는 방법, 곧 '가려 쓰기'가 그것이었다.<sup>5)</sup>

日本은 위로부터의 혁명인 明治維新을 성공적으로 수행, 中央集權的 民族국가를 수립하여 外勢를 몰아내고 帝國主義國家로까지 급속도로 발전했다. 즉 일본은 단시일안에 국내의 多元的 封建勢力을 해소하여 그것을 天皇의 權威아래 통합하고, 위에서 말한 '가려 쓰기'를 絶妙한 솜씨로 구사하면서 '富國強兵政策'을 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치리짐 또는 不均衡이

4) Hans Kohn, *The Idea of Nationalism*, Macmillan, New York, 1956, p. 20. 白樂晴 譯음, 『民族이란 무엇인가』, 創作과 批評社, 1981, p. 41.

李用熙, 「民族주의의 개념」, 盧在鳳編 『韓國民族主義와 國際政治』, 民音社 1983, pp. 215~16.

5) 丸山眞男,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增補版), 未來社, 1973, pp. 157~58. 白樂晴 譯음, 같은 책, p. 279.

생겨났지만,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민주주의와도 사회혁명과도 내면적으로 결부되지 못하여 ‘前期的’(絶對主義的) 내셔널리즘의 여러 특징들을 짚게 남긴 채 그것을 近代내셔널리즘의 末期的 變質形態인 제국주의와 유착시켜 버렸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國民的 解放의 과제를 일찍부터 포기하고 國民主義를 國家主義로 변질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超國家主義로까지 승화시키면서<sup>6)</sup> 제국주의적 對外膨脹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敗戰의 苦杯를 마시고 말았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일본에서와는 달리 그같은 ‘가려 쓰기’에 成功하지 못했다. 즉 서양의 軍事技術을 도입하려던 洋務運動에서 일본의 明治維新을 본따 立憲君主制로의 제도개혁을 피하려던 戊戌變法으로 이어진 위로부터의 近代化 努力이 清朝내부의 강대한 保守勢力 때문에 실패했다. 그리고 滿洲 王朝를 타도하고 民主共和制를 수립하려던 辛亥革命도 만주왕조 타도에는 성공했으나 袁世凱의 帝政復歸 음모로 민주공화제 수립에는 실패했다. 辛亥革命후 중국에서의 내셔널리즘운동은 주로 反帝·反封建의 슬로건 아래 近代國家의 수립을 겨냥하게 되었지만, 당장은 政治가 절망적으로 되었으므로, 文化에로 관심이 쏠려 傳統과의 對決, 西洋과의 對決을 피하려던 ‘新文化運動’이 전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列強帝國主義의 집중적 잠식을 받아 점차 半殖民地化되는 가운데, 排外的 내셔널리즘운동인 5.4 운동과 5.30 운동이 전개되다가 마침내 ‘滿洲事變’을 계기로 중국의 내셔널리즘운동은 분명히 抗日運動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sup>7)</sup> 中日戰爭 발발후 國共合作, 抗日統一戰線이 결성되었고, 2차대전후에는 중국공산당의 영도아래 내셔널리즘과 사회주의가 결부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른바 ‘東道西器論’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같은 ‘가려 쓰기

6) 丸山眞男, 같은 책, pp. 159~60; 白樂晴 역음, 같은 책, pp. 280~82.

7) 岡田 晃, 「中國におけるナショナリズム」, 世界經濟調査會 編, 『ナショリズムの研究』, 慶應通信, 1956, p. 79.

山本 新, 앞의 글, p. 13.

가 시도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위로부터의 혁명인 甲申政變도 밑으로부터의 혁명인 東學運動도 안으로는 國論分裂, 밖으로는 外勢干涉으로 모두 실패하고 결국 植民地化되고 말았다. 이에 植民地 내셔널리즘으로서의 한국내셔널리즘은 自己發展을 지향(反封建鬭爭)하기 보다는 外勢에 抵抗(反帝鬭爭)하는 속성을 더 강하게 지닐 수 밖에 없었지만, 他律的인 해방이라 分割獨立후 한국내셔널리즘은 周邊國·分斷國 내셔널리즘으로서 민족 국가의 자주적 발전과 民族統一이라는 해방후의 과제를 안게 되고 있다.

## V. 原因科明

東아시아 三國에서 위와같이 對應方式에 차이가 생긴 것은 주로 西洋의 총격적인 침입에 가장 민감한 反應을 나타낸 既存國家의 지배층의 상이한 對應能力 때문이었다 하겠다.

明治日本の 再生의 원동력이 된 지도층은 서양의 挑戰에 대응하여 쫓겨갔던 武士들이었는데, 전통적 지배계급인 그들 武士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活力을 보전하고 있었을까?

德川封建體制밑에서는 무사는 지배계급으로서 農·工·商 등 다른 계급 위에 君臨하고 있었으나, 그 무사계급 내부에도 몇층으로 된 序列構造가 있었다. 하급무사는 같은 武士身分이면서도 엄격한 序列構造에 의해서 상급무사로부터 차별을 받았다. 貨幣經濟의 발달로 인하여 생활이 곤궁하게 된 하급무사들은 많은 수가 手工業에 종사할 수 밖에 없었다. 封建體制내부에서 스스로 存在理由를 발견하지 못했던 이들 하급무사 사이에는 既存秩序에 대한 비판정신과 현상변혁사상이 널리 퍼져 갔다. 幕府政治나 藩의 政治에 대한 신랄한 비판자로, 또는 구심점을 갖지 못하던 일반서민의 지도자로 된 그들 하급무사들은 既存體制를 붕괴시키고 明治維新을 추진하는 정치적 주체로서 활동하고 후일에는 새 정부의 官僚로서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 활약했다.<sup>8)</sup> 하기가 그들은 다른 요인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

는데, 즉 일본에서는 明治維新 당시 근대화를 이룩할 內在的인 힘이 상당한 정도로 자라고 있었고, 國際情勢도 또한 유리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지도층은 국내적인 階層的 支配(hierarchy)의 눈으로 國際關係를 보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相對方을 먹느냐 상대방 한테 먹히느냐 둘중의 하나로 문제가 설정되었다. 國際關係를 규율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規範意識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제까지의 소극적 防衛意識은 일단 힘이 생기면 당장 무제한의 膨脹主義로 바뀌었던 것이다.<sup>9)</sup>

중국에서는 당시 淸朝이외에 새로운 사태에 적응할 수 있는 分派가 지배세력 내부에 출현해 있지 못했고, 근대화의 內在的 힘도 그리 자라고 있지 못했다.

淸朝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의 意識化를 막고자 서양의 進步的 영향에서 그들을 隔絶시키려고 했다. 이에 따라 淸의 지배자들은 國家나 國土의 보전보다는 '神聖'한 帝位의 보전에 더 신경을 써 서양의 혁명적 思想 侵透와 인간관계를 바꾸게 할 새로운 生産技術 침입을 막는데 더 힘썼다. 그리하여 淸朝는 국가나 민족을 희생시키면서 歐美列強에 타협과 양보를 거듭, 半植民地化를 自招했다.

辛亥革命으로 淸朝는 타도되었지만, 여러 모로 유리한 市場이었던 중국은 일본까지 긴 帝國主義列強의 치열한 分割競爭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政權이 買辦化하고 外國勢力한테 조종당하게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한쪽에 형성된 舊支配構造와 제국주의와의 癒着이 불가피하게 다른 한쪽에서 내셔널리즘과 사회혁명(사회주의)의 결합을 자극하고 촉진했던 것이다.<sup>10)</sup>

8) Masao, Takahashi, *Modern Japanese Economy*, Kokusai Bunka Shinkokai, Tokyo, 1967, pp.42~43. Robert E. Ward, "Japan," in Robert E. Ward and Roy C. Macridis(eds.), *Modern Political System: ASIA*, Pri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63, p.24.

Shigeru Yoshida, "Japan's Decisive Century", Britannica, *Book of the Year 1967*,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pp.21~23.

9) 丸山眞男, 앞의 책 p.157; 白樂晴 엮음, 앞의 책, p.278.

10) 丸山眞男, 같은 책, p.195. 白樂晴 엮음, 같은 책, p.281.

끝으로 한국에서는 事大思想과 形式主義的 儒敎思想에 젖어 있던 한말의 지도층은 지도층으로서의 活力을 잃고 國際情勢와 時代潮流에 대해 너무나 鈍感한 나머지 國家危機에 처해서도 침략세력과 손을 잡고 黨派싸움을 일삼다가 결국 國權을 상실하고 말았다.

하기는 韓末당시 한국에는 근대화를 이룩할 內在的 힘이 일본만큼은 자라 있지 못했고, 또한 일본의 악착같은 侵略意圖로 말미암아 國際情勢도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產業發展의 격차가 한국 지도층이 전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고, 對處할 시간의 여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층의 派爭이 日帝의 침략을 自招했던 것이다.

다른 아시아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外勢의 침략에 저항하는 가운데, 武力叛亂—文化的 啓蒙運動—政治的 獨立運動의 과정을 밟으면서 성장한 한국의 근대적 내셔널리즘은 러시아혁명후에는 점차 左右로 분열된 내셔널리즘운동이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의 갈등속에서 左右合作의 모색과 그 挫折을 되풀이해 오다가 解放을 맞이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은 주로 他力에 의해서 해방된데다 미소냉전으로 인하여 祖國은 양단되니 독립운동내의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은 南北으로 갈라서고 6.25의 비극은 그 대립은 한층 더 격화시켰다. 오늘의 東西解氷무드 속에서도 東유럽의 격동이 솟처럼 한반도에는 波及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로 이 때문이다.

## VI. 問題點

일본의 近代史는 두 측면을 가진다. 하나는 西洋과의 관계라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나라, 특히 韓國 및 中國과의 관계라는 측면이다. 한국과 중국이 없는 일본의 近代史는 성립할 수 없건만, 일본인들은 흔히 이점을 看過한 채 西洋과의 관계에만 치중해서 自國의 近代史를 쓰려 들고 있다.

실로 '西洋을 따라잡고 西洋을 앞지르자'라는 明治이래의 슬로건이 실현을 보게 된 오늘날, '强者에게는 약하고 弱者에게는 강한' 일본인의 특이한 성격은 이제는 오직 强者의 입장에만 서서 이웃 나라를 보는 大國意識化할 여려가 없지 않다. 復活되고 있는 오늘의 일본 내셔널리즘은 이점 깊은 省察이 결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내셔널리즘과 社會主義가 결합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經濟的 土臺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社會주의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生産關係에 치중하다가 下向平準化를 이루고 말아, 다음에는 實用主義路線에 따라 生産力增強을 꾀하다가 개발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試行錯誤를 거듭하고 있어 그 歸趨가 주목되고 있거니와, 한편 單一民族國家가 아니라 多民族國家인 중국의 경우 少數民族問題는 계속 宿題로 남아 있다 하겠다.

오늘날 한국의 내셔널리즘은 民族統一이라는 특이한 과제를 안고 있는 分斷國의 내셔널리즘이거니와, 특히 남한의 경우 그것은 國家엘리트들에 의한 國家主義的 내셔널리즘과 민중들에 의한 민중주의적 내셔널리즘으로 분열되는 樣相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두 내셔널리즘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른바 政權史와 民族史의 乖離를 극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요청된다고 하겠다.